



← 'Diary of a Dancer' 스틸 컷

“이 작품은 혁신이다”

전주프로젝트마켓, '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선정작 발표

‘극’ Diary of a Dancer 등 5편 · ‘다큐’ A Treatise on Limnobygy 등 1편

전주국제영화제의 전주프로젝트마켓(IPM)이 10주년을 맞아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 에디션'을 신설하고, 6편의 선정작을 발표했다.

넥스트 에디션(NEXT EDITION)은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 해외작품 선정을 위한 프로젝트 피칭 프로그램. 우수한 해외 프로젝트가 전주시네마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한 기획 및 제작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올해 첫 피칭 무대에는 '극영화' Diary of a Dancer(감독 다미앙 매니블 Damien MANIVEL), Grassland on the Sea(감독 쥐 안지 JU Anqi), Rabbit Island(감독 라니아 아티에 Rania ATTIEH, 다니엘 가르시아 Daniel GARCIA), Static Future(감독 다비 프레투 Davi PRETTO), The Drift(감독 이그나시오 아귀에로 Ignacio AGUERO)와 '다큐멘터리영화' A Treatise on Limnology(감독 다네 콤렌 Dane KOMLJEN, 제임스 라티메 James LATTIMER) 등 총 6편의

프로젝트가 오른다.

심사위원단은 “대안의 흐름을 증시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비전의 작품들을 선별하기 위해 애썼다”며 “영화제가 직·간접적으로 발굴, 지지해 온 작가들의 프로젝트에도 주목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6편의 프로젝트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10회 전주프로젝트마켓의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 에디션' 행사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본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1편의 JCP 해외 프로젝트는 8일 전주프로젝트마켓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청소년 문화대탐험 참가자 모집

18일까지... 연령은 14~24세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8 전라도 청년 청소년 문화대탐험'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과 9월 연 2회 실시되며, 2박 3일의 일정 동안 모바일 스탬프투어(APP) 진행을 통한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선 즐기기, 전라북도 투어패스카드 활용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14세~24세 연령의 내·외국인으로,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권 지역 거주자에 한한다. 전라도 역사문화에 관심이 많고, 탐험 활동에 적극적이며 블로그 및 SNS 홍보활동이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선발된 이들은 '전주한옥마을' 일대와 '전라



감영지' 방문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도시 재건 현장을 체험 하고, 군산 방문을 통해서도 근대역사문화와 해양문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문화대탐험은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권 청소년들의 전라도 방문을 유도하고,

청소년 시각에서 전라도의 숨겨진 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시간여행을 통해 전라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내일 김제문예회관에서 '흐르는 물과 같이'

조선 후기의 3대 명필 창암 이삼만, 글씨가 노래이자 춤이었던 그의 스토리를 '흐르는 물과 같이'라는 공연으로 재탄생돼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14일 오후 2시에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정한 예인의 삶과 예술세계를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행운유수체(行雲流水體)를 만든 창암 이삼만의 흐르는 물과 같이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예술가로 치열하게 살았던 삶과 그의 옆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오로지 예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왔던 부인 여옥, 그리고 예도의 동반자였던 판소리 명창 심녀와 예술적 교류 등이 생생함을 더한다.

특히 유쾌한 에피소드와 영상, 멋스러운 소리가 공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해은 기자

‘숲으로 발을 딛는 순간 영화가 보인다’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무주산골영화제조직위원회가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 공식 포스터는 영화 축제의 열기로 가득한 무주의 숲을 향해 걸어가듯 두 주인공의 행복한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내며 보는 이로 하여금 무주산골영화제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설렘과 기대감을 담아낸다.

올해 영화제의 포스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연필로 명상하기'에서 제작했다.

연필로 명상하기는 안재훈 감독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섬세한 그림체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여 왔다. '소중한 날의 꿈'(2011), '베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2014), '소나기'(2017) 등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치유의 힘을 주는 작품으로 그림의 가치를 전한다.

연필로 명상하기 관계자는 “무주산골영화제는 그 자체가 자연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체험형 극장이다. 이번 포스터를 통해 영화가 가득한 무주의 숲으로 발을 딛는 순간을 자연의 빛깔과 함께 표현하고 싶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정해은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측은 그동안 일러스트 중심이었던 역대 영화제 포스터와는 달리 연필로 명상하기 특유의 수채화 기법을 활용한 감성적인 포스터로 영화와 자연의 어울림을 추구하는 무주산골영화제를 더욱 새롭게 빛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무주군 일대에서 열린다.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1일 센터 로비에서 결혼이민여성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베이커리 생산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들의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여성 '베이커리 작품전시회'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결혼이민여성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베이커리생산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들의 작품전시회를 11일 센터 로비에서 열었다.

전시회 참여한 교육생들은 3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8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이들로, 실습을 통해 습득한 기술로 만든 마들렌과 시폰 케이크 등 20여 종류의 작품을 전시해 보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교육생의 모집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교육

과 함께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해 일자리 유관기관 및 기업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일자리협력망회의도 가졌다.

이운애 센터장은 “이번 베이커리생산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전문실습교육을 제공,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연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료식 당일에는 관련 기업 및 구인업체 CEO 및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현장면접 및 즉시 채용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